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0호 [부제 제26054호] 주제 107(2018)년 6월 29일 (금요일)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 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조국의 천만군민이 만리마의 기세로 높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경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호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에 잊을수 없는 경상의 날로 아로새겨진 이날을 맞으며 세종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 조선인들은 백두밀령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높은 힘으로 이끄러나가고 있는 조국과 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께는 충성과 흥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원인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불굴성의 상상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학문은 조국의 천만군민과 우리 계파의 한결같은 의사와 남원의 표시이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승고한 도덕의리를 자신의 첫째가는 본분과 의무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꿈을 펼쳐주시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영성에 고귀한 업적은 특히 후손에게 길이길이 및나에게 하여 주시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차아래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동발시키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승리의 네대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본분의 혁명활동 자속이 새겨져있는 중국 등북방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세대인들의 불멸의 혁명영성을 전세계에 및나에게 내나리, 내 조국의 풍성번영을 위한 통일에 국운을 풀기위해 냉려나가겠습니다.

온 겨레의 운명과 행보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강과 안녕은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면회입니다.

제2018(2018)년 6월 27일

중국 싱양

사설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우리 나라에서 7월과 8월은 장마철이다. 예로부터 가뭄들은 있어 장마문은 없다고 하였다.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비가 자주 내렸다고 하여 장마철의 강수량이 적고 큰 물이 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현실은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온 경제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방

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떠나 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조례하고 장마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을 짜증없이 장악하며 강하천정비를 비롯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파기와 제방발수를 하여 부침 꽁풀이 뿐들어나거나 뿐들되는 월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분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 후반으로서 때마다 큰물과 폭우가 되어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간 광미터가 가을과 큰물로 하여 경제건설에서 세로운 농은 단계에 걸친 광미터가 광미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중곡방문에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무한한 광지와 치우침을 더시금 새롭게 실장에 주어 세종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원수님께서 새로운 농은 단계에 걸친 광미터가 되어 광미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달방에 및내일 있게 한 민족사회정성사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광미터의 광미터를 통해 대

당의 새로운 전략적 선관철을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선봉투사의 영예를 빛내여간다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를 등 탄 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가슴 속에는 주제 83(1994)년 6월 29일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듯 깊은 그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전선으로 수천 명의 정신, 그 기백으로 수천 명의 헌장과 막장을 품은 듯한 내리고 나라이의 세한 산을 높이 쌓아갈 정성의 행세를 달아 울린 이들이 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그날의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장에 다진 맹세를 했던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달되면서 혁명적 일원으로 전투적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국의 한장을 지켜선 지하의 초병이 되자.

소대원들은 이런 신념을 안고 지하막장에 위훈의 자목을 세기

겠습니다.』

그들은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일군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어울렸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넘쳐서 뛰어 들어온 그들의 일상이 짜증스러운 그들의 일상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군들이었다.

같은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충성의 정의 편지를 삼가 유통하고 한글한 시에 사람도 고장도 낫는 여기 통동광 1 쟁 풍부리에 대한 제대 군인 당원들이었다. 맹세는 실천으로 남았던 것이다.

그들은 제대원들의 일상에 알맞은 일상이었다. 그들은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일군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어울렸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넘쳐서 뛰어 들어온 그들의 일상이 짜증스러운 그들의 일상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군들이었다.

같은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충성의 정의 편지를 삼가 유통하고 한글한 시에 사람도 고장도 낫는 여기 통동광 1 쟁 풍부리에 대한 제대 군인 당원들이었다. 맹세는 실천으로 남았던 것이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당원들이 당시에 풀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자작을 안고 혁명 기백이 차지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를 도맡아하고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지하의 척후병들이다.

이것은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의 의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언제인가 석학때장이 풍부한 선무역지구에 체현장을 다시 마련하는 문제에 나섰을 때였다.

오래전에 침수된 막장을 복구하는 일은 작업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하여 매우 어려웠다. 통동광 1 쟁 김영욱 고속도급 진 소 대원들은 혁신적인 소식이 한광지구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의 믿음을 헛되이 아니었다. 김영욱, 양영근 등부를 비롯한 막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는 저체육이 낮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즉시 조립에 빠졌다. 압축기의 고르로 운동을 더니 유통을 더해 소대원들이 기쁨을 금지 못하게 정할 수 고맙고 하자 강정 두동무는 막장을 복구하고 암벽에 작업장을 박았다.

사람들 모두가 서로 끓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행이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대성구역 미산 2동에서 사는 최평일, 오초옥부부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명의 부모 많은 아이들을 데려온 원자녀로 평 기위로 국적을 떠나온 내세웠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남들보다 몇 칸집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미지고 헌신해온 그들의 모습은 사회주의의 한식 출로 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지향과 책임감을 강요 살아야 하는 가를 용변으로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 우리 사회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서로하고 이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대해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10월 어느 날이었다.

직장에서 빠져온 남편이 어느 날이 오초옥동부의 손에 《로동신문》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신문에 부모 많은 아이들을 대려온 기우는 한 처녀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구만. 당신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초옥동부는 처녀가 아이들을 데려온 기우는 말에 호기심이 부족하였다.

신문에는 부모 많은 두 어린 이를 맡아기우는 한 처녀방송원에 대한 소행이 실려 있었다.

세상을 떠난 종업원이 남긴 자

우리는 모두 한가정

대성구역 미산 2동 50인민반

최광일, 오초옥부부의 생활에서

식들을 위해 정양으로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마다 단념한 기록한 처녀, 혈육도 아닌 남의 자식들을 돌보느라 온갖 정성을 다하는 날모를 처녀의 소행에 대한 기사는 읽을 수록 오초옥동부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오래도록 신문을 놓을 줄 모르던 그가 어찌면 처녀가 그런 장한 걸음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우리도 부모 많은 아이들을 데려온 키우자요. 그때서 당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자요.》

남편의 이 말은 오초옥동부의 심장을 뜯고 울려주었다.

화목한 대가정의 한식 출로는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그 대가정을 드리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파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세감이 물처럼 고여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을 철자식으로 등록한 그들로부터는 철혈육의 정을 풀어주었다.

효심이가 남달리 음악적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품들여 흔쾌금도 마련해주고 품을 예술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정법한 처녀방송원의 삶이 가로

마을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초옥동부는 온밥 짜를 이룰 수가 없었다.

조국을 지켜 퍼려온 헌신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행동으로 그들이 부족한 힘을 더해온 것이다.

신분에는 부모 많은 두 어린 이를 맡아기우는 한 처녀방송원에 대한 소행이 실려 있었다.

세상을 떠난 종업원이 남긴 자

땅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불같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놀 땅에서 아파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조국의 점을 떨어뜨려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참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이튿날 오초옥동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도 부모 많은 아이들을 데려온 키우자요. 그때서 당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자요.》

사실 노니 그대에서 당신에게 신문을 들고왔던 거요. 그런 며칠장을 하면서 어린 자식까지는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이왕

이번 건강한 애를 데려올 것인지 고생을 사서 하는 거고 허를 냈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무도 가꾸기인이 아니겠어요. 내 꼭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려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엎고 매일이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을 구하기 위해 면걸을 다니며 고생을 했지만 그 대가로는 품들여 배워온 철혈육으로 품들여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무슨은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오초옥동부는 언제 한번 결근이나 조퇴를 물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사회주의에 가정의 한식 출로를 넘어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부모 많은 아이들을 수심평이

살려는 국민적 자각은 그토록 어려운 나날에도 오초옥동부를 한 가정보다 절단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걸에 주저없이 내비쳤다.

몇 해어간에 그는 39명의 부모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친자식 하나를 키우는데도 오만공수의 풀이 든다는게 39명이나 되는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 키우느라 그가 비친 수고를 편안히 바친 것이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신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언제인가 오초옥동부가 부평이

는 용각장을 데려왔을 때였다.

관찰원으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이왕

이번 건강한 애를 데려올 것인지 고생을 했지만 그 대가로는 품들여 배워온 철혈육으로 품들여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무슨은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오초옥동부는 언제 한번 결근이나 조퇴를 물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하지만 노니 그대를 데려온 자식에게 먹여 살려주었을 때였다.

관찰원으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이왕

이번 건강한 애를 데려올 것인지 고생을 했지만 그 대가로는 품들여 배워온 철혈육으로 품들여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무슨은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오초옥동부는 언제 한번 결근이나 조퇴를 물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녀의 향심의 문을 두드려 준 고마운 마을에 바친 전쟁로병이었던 아버지가 눈 위우군 하면 말도 그 남따라 기습을 세차게 쳤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최광일은 헌정은 훈장을

수상한 자식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최광일은 헌정은 훈장을

수상한 자식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최광일은 헌정은 훈장을

수상한 자식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최광일은 헌정은 훈장을

수상한 자식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자각이었다.

최광일은 헌정은 훈장을

수상한 자식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때에 되어 최충실, 최효심

자매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였다. 한 자식을 둘보기도 힘에 부힐 때였지만 오초옥동부는 지친 자식들을 데려온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가족으로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일에 지닌

자식들의 책임과 분분에 대한

